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 ————— 건강한 임신, 아름다운 분만

# 자궁속 태아도 수술·약물치료 가능

임신과 분만은 여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임신 전 또는 분만 전 관리는 임신과 분만 및 산욕기와 그 이후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전관리는 임신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함이지만 그 이외에도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부들 중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학적인 문제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직업으로 인해 노출되는 환경인자와 태아에 대한 영향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전 또는 산전관리를 통해 인지하여 교정할 수 있다.



김중운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최근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건강한 임신, 아름다운 분만'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임신전 간염·당뇨 등 질환 완치 필수

### 철저한 산전관리 고위험 임신 예방을

◇임신전 관리=풍진, 수두, B형 간염의 면역 여부를 알아보고 빈혈 여부도 검사해야 하고 신장,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의 경우 임신 전의 관리가 임신 중 및 출산 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매우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며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 최근 태아와 자궁내 환경에 대해 잘 알려지게 되면서 모체태아의학은 단순히 태아 건강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출생 후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건강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신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태아의 질환에 대해 산전 진단과 치료법이 발달함에 따라 태아를 환자로 인식하고 태아를 위협하는 신체적인 이상이나 기능 장애를 확인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태아는 자궁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선천성 기형=수정 후 배아거나 태아기 동안에 형성되는데 정상적인 형태나 기

능에서 벗어나 해부학적인 이상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불균형과 외형상으로 구별이 되는 결손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유산 및 신생아 사망의 흔한 원인으로써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발생기전이 복잡적이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임신 중 유전질환 및 선천성 기형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산전진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임신 초기와 중반기에 초음파와 여러 가지 산모 혈액내의 표지물질을 이용한 선별검사의 등장으로 불필요한 양수천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태아 염색체 이상의 산전 진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천성 기형의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선천성 기형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기형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가능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태아 건강 진단=태아건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검사법이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진단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태아심박수와 여러 자극에 따른 심박수의 반응 뿐 아니라 태아, 태반 그리고 양수의 영상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초음파로 자궁 내부를 확인하며 직접 태아혈액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최신 방법을 이용하여 태아의 생물학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정밀초음파검사와 입체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태아신장기형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어 태아의학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위험 임신=최근 가임기 여성의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고령임신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전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당뇨, 과거 수술 경험과 같은 내·외과적 질환이나 이번 임신에 발생한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경관부력증, 다태임신, 조산이나 미숙아 분만, 사산, 기형아 분만, 출혈성 합병증, 난산, 양수과다증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임신 중에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의 합병증의 증후와 증상, 태아의 성장 발육, 임신 중 영양섭취, 휴식과 활동의 정도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위험임신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김중운 교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0대가 꼭 행여아할 건강검진 질환

# A형 간염 백신 6개월 간격 2회 접종 후반기 남성 1, 2년 간격 고혈압 검사

20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다. 또 졸업과 취직, 직장생활, 출산과 육아 등 긴장의 연속인 생활을 하면서 술·담배·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혹사당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대의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검진을 받길 원하는 20대라면 혈압, 위내시경, 갑상선 검사, 흉부 X레이 등을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것이 좋다. B형 간염 면역 여부를 확인하고 A형 간염, 이상지질혈증, 우울증 등도 검사해야 한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등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20대대 맥압이 쓰러지게 하는 A형 간염=혈기 왕성한 20대도 A형 간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A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9년 새 145

배나 폭증했다. 이중 80%가 20~30대다. 20대가 A형 간염 앞에 맥압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은 A형 간염 항체 보

유 때문이다. 20대는 윗세대보다 위생환경이 호전된 80년대 이후 출생해 어릴 때 A형 간염을 앓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 보유율이 낮아졌다.

A형 간염은 감염 후 평균 28일(15~50일)의 잠복기를 지나면 간염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후에 열, 피로감, 근육통, 식욕부진, 복통, 구토, 흑갈색뇨, 황달 등의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난다.

항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A형 간염을 진단할 수 있다. 20대는 A형 간염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20대 후반 남자라면 고혈압 검사도 필수=성인병으로만 알려진 고혈압이지만, 20대 역시 무심경하게 둘 수 없는 질병이다. 특히 20대 후반 남자라면 1, 2년 간격으로 혈압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해 피를 뿜어낼 때 나타나는 수축기(최고)혈압과 심장이 확장해 혈액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이완기(최저)혈압의 두 종류가 있으며 수축기 혈

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일 때 정상으로 판정한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혈압만 측정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혈압은 활동량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고 휴식을 취할 때는 내려간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중이 늘어날수록 혈압은 서서히 올라간다. 건강한 20대의 경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혈압이 120/80mmHg를 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휴식기 혈압이 140/90mmHg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다.

◇20대 권장 예방주사=A형 간염 예방 백신은 6개월 간격을 두고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B형 간염 예방 백신은 총 3회 접종하는데, 항체가 생성되지 않을 때는 1~3회 정도 더 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발생확률을 70~80%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산 등을 예방할 수 있어 20대 여성에게 권장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주사는 6개월 동안 3번의 주사를 맞으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밝은광주안과·광주우리병원

#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김재봉)와 광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재성)이 최근 '제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2011)' 호남지역 시력교정 부분 대상, 척추 부분 대상을 각각 차지했다.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은 전문가·내러티브 조사, 병원 모니터링, 공동 자문위원 인증을 거쳐 대학병원, 전문병원, 전문클리닉 부문으로 구분해 분야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병원에 주어진다.

밝은광주안과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시력교정 전문클리닉으로, 광주·전남권 환자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최신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첨단 수술 장비 및 진단장비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노안교정이 가능한 라식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남에서는 최초로 안



김재봉 원장



김재성 원장

과의료 서비스부분 국제표준 ISO9001인증을 획득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등록도 되어있다.

광주우리병원은 지난 2004년 9월 광주 상무지구에 82개 병상 규모로 개원해 척추전문의 8인을 포함한 전문의 12인이 진료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광주시 북구 두암동 말바루 사거리에 72개 병상 규모의 동광우리병원을 개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국내·외 현장학습 보고회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선현)은 최근 국내·외 현장학습(Field Study)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치치원에서는 매년 1월과 2월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내·외 치과병원과 치과대학에 2, 3학년생들을 파견해 진료 및 선진 교육시스템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학습 욕구를 고취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최신 치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0회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파견된 기관은 국내 치과병원으로는 삼성서울병원·서울 아산병원·광주 서정치과병원·수원 미르치과병원·평촌 아름다운치과병원, 국외 치과대학으로는 미국 Pacific(퍼시픽)대학·캐나다 British Columbia(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일본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동경의과치과대학)·Tohoku(도호쿠)대학·싱가폴대학 등 총 1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학습 보고회 발표팀은 총 11개 팀으로 구성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쌍꺼풀 수술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단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

을 수 있다. 짙은,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물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수명이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술 후 1주일 이내 시력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 후 3일 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